



젊은 날의 사랑은 아름답다. 그러나
성과 사랑의 문화적 각본도 사회흐름에 따라 변화하게 마련이다.
(崔東植)

성과 사랑의 문화의 자기表現

“누가누굴 책임지나”... 그때그때 감정에 충실

지난 14일 연세대학교와 「성(Gender)과 사회」의 시간(趙惠貞교수)은 재미있는 토론이 벌어졌다. 주제는 신세대의 성(Sex)과 사랑.

이들은 성과 사랑의 규격이 없다. 참한 여자와 아가씨가 함께 살고 싶으면 참한 친구에게 소개를 받고 또 스펀지 스텝은 날보고 싶으면 록카페 같은 데 가서 노는 여자를 구한다. 파와 장소, 분위기, 따라 산책을 고르듯 선택한다(「남학생」).

「교양이 갖추장스리와 죽겠는 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 혼전성관계에 대해서도 민중들은 사람의 아파 없을까?」(「학생」).

「학교에서 교복과 배운 도덕과 저능 대이성 신뢰하지 않는다. 두 사람이 원하고 또 책임질 수 있다면 혼전성관계는 가깝다고 본다」(「학생」).

「결혼을 해야만 책임지는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혼전성관계에 대해서도 민중들은 사람의 아파 없을까?」(「학생」).

「교양이 갖추장스리와 죽겠는 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 혼전성관계에 대해서도 민중들은 사람의 아파 없을까?」(「학생」).

「결혼을 해야만 책임지는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혼전성관계에 대해서도 민중들은 사람의 아파 없을까?」(「학생」).

「교양이 갖추장스리와 죽겠는 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 혼전성관계에 대해서도 민중들은 사람의 아파 없을까?」(「학생」).

「결혼을 해야만 책임지는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혼전성관계에 대해서도 민중들은 사람의 아파 없을까?」(「학생」).

「교양이 갖추장스리와 죽겠는 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 혼전성관계에 대해서도 민중들은 사람의 아파 없을까?」(「학생」).

「결혼을 해야만 책임지는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혼전성관계에 대해서도 민중들은 사람의 아파 없을까?」(「학생」).

「교양이 갖추장스리와 죽겠는 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 혼전성관계에 대해서도 민중들은 사람의 아파 없을까?」(「학생」).



신세대의 성폭속도를 그린 영화 「그여자 그남자」의 한장면. 영화 기획팀이 20대 미혼남녀 5백명을 조사한것에 따르면 44.6%가 「사랑하면 혼전섹스 가능하다」, 23.5%가 「사랑하지 않아도 섹스 할수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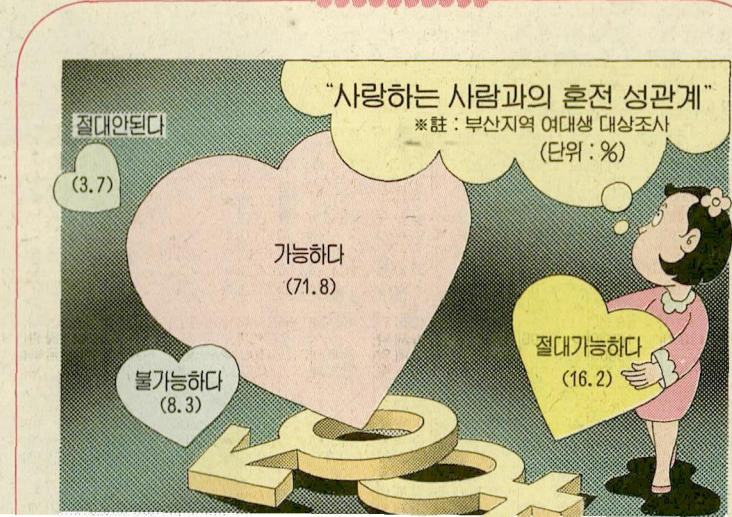


24

애정관

남자에게는 허용되고 여자에게만 엄격한 이중적인 성규범에 갈등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

이중적 성규범 불만 한 여성단체에서 「성폭력 연구모임」에 참여한 직장여성 24명은 「서로가 사랑하고 원하고 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면 혼전관계도 가능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결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가족-결혼의미 퇴색... 다양한 가치관 갈등

「결혼을 해야만 책임지는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혼전성관계에 대해서도 민중들은 사람의 아파 없을까?」(「학생」).

「교양이 갖추장스리와 죽겠는 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 혼전성관계에 대해서도 민중들은 사람의 아파 없을까?」(「학생」).

“체계적 성교육 시급”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금까지 체계적인 성교육이

애정관

한편 책임자는 일
기성세대는 거리에서 서로
꺼안다시피 애정표현을 하는 젊은이들을 쫓겨가며 바라보지만
신세대는 '내숭의 미덕'을 버
린지 오래다. 영화와 판극의
성 그리고 학교와까지 진출한
합산연수에 자란 그들은
「대기만성대기만하면 성립대」
세대라는 우스갯소리를 있다.
연애와 결혼을 분리할 수 있
는 신세대는 같은 맥락에서 성
과 사랑의 분리도 가능하다. 특
히 남성을 사의에 그린다.
자녀를 컴퓨터통신 하이텔
을 통해 교류하던 신세대의
성과 사랑을 들이보자.
「고전을 읽고 싶어요」 하지만
신세대는 그런 사랑을 못해요.
인스턴트 사랑을 해요. 나
트를 달아서 만나 하룻밤에 관
계를 끝내기도 하거든요.
「신세대의 성규범을 바꾸라기
전에 현실을 살펴야 합니다. 평



신세대의 성풍속도를 그린 영화 「그여자 그남자」의 한 장면. 영화 기획팀이 20대 미혼 남녀 5백명
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44.6%가
「사랑하면 혼전섹스 가능하다」,
23.5%가 「사랑하지 않아도 섹스
할수있다」고 응답했다.

는 애정표현
의를 전체 신세대
고 일반화할 수
「성」의 특성과
가 특히 「성과 사
는 화성을 기존
진지하게 「왜」를 따
올 거진 트인 젊은
이다.
에게는 다소 충격적
달은 어찌면 신세
에게는 진부한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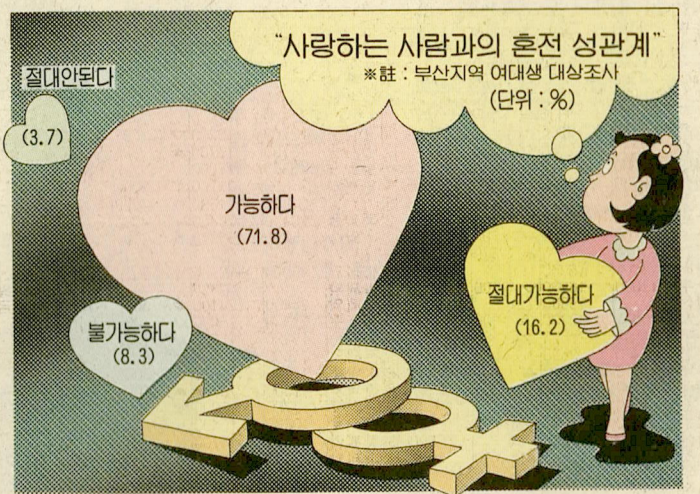
관 결혼연령은 20대 후반인데
육체는 10대에 완성되죠. 이 간
격을 어떻게 메우니까. 사랑은
성을 기초로 성립되는 것이지
단성이 반드시 사랑을 기복이
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H기업에 근무하는
김모씨(27)는 이렇게 설명했다.
「보통 남자들이」 여자를 처럼
연스럽게 애기다.

성과 사랑에 인성을 결지않습
니다. 사회에서 성립하면 돈과
여자는 자연히 따라온다지않습
니까. 20대의 섹스가 편성을 좌
우하는 여자들한테 「다트지오」
그래서 성은 물줄기 「물건」
과, 사랑은 아한 애정과, 결혼
은 정숙한 본체와 하는 것이 자
연스럽다는 애기다.

남자에게는 허용되고 여자에
게만 엄격한 이같은 이중적 성
규범에 갈수록 여성들도 적
지않다.

이중적 성규범 불만

한 여성단체에서 「성폭력 연
구모임」에 참여한 「직장여성
李모양(24)은 「서로가 사랑하
고 원하고 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면 혼전관계도 가능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
다. 그러나 결혼이 이뤄지지 않



“婚前관계 가능하지만 純潔 지켜야” 女大生조사

부산여대 여성문제연구
소가 지난 3월 부산지역
남녀대학생 5백명을 대상
으로 조사한 「성의식에 대
한 연구」에 따르면 여대생
들의 88%가 「사랑하는 사
람과의 혼전 성관계가 가
능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75.9%는 「여성
은 혼전순결을 지켜야하
다」고 보고있어 실제 행동
과 관념간의 괴리를 드러
냈다.
반면 남학생들은 「사랑없
는 사람과의 혼전관계가
가능하다」(60.4%)고 여기
며 「남성의 혼전순결을 지
켜야한다」고 믿는 사람은
4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사랑은 일종의 자기表現

“누가 누굴 책임지나” : 그때그때 감정에 충실



문화는 여자들의 발을 붙여
이 되느냐 크기때문에 「값싼
자신이 있는 경우에만 감행하
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신세대는 성에 대해 개방적
이고 현실적인 반면, 사랑에 대
해서는 동화속의 환상에 몰두
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대학
생 대학원생의 성과 사랑을 주
제」로 석사논문을 준비하고 있
는 李京美씨(30)는 「백마 탄 왕
자」를 「단풍이 붉어지면 반
하는」로만 생각한 환상의 두
드러진다고 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위해 물과
마음을 바치는 순정화 문화는
정도의 「트로이카 시대」 사랑과
는 다를 모른다.
어디선가 자신을 찾아올 사
랑을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또
는 사랑을 두어 많은 이성을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 상대방
보다는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
는 「그림」을 그려 헤아리지만
상처를 달랠 만큼만 사랑하
려고 애쓰는 「회사원 최모씨
(26)는 이런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부도
덕하다거나 무관하다고 매도하
는 기성세대와 신세대는 반
대한다. 오대성 김남원(28)은
「자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그때그때의 상대방에 성실하
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

가족-결혼의 미 퇴색... 다양한 가치관 갈등

「기존 관념에 대한 반발이라
고 생각해요. 기성세대는 매춘
후의 정사를 당연히 여기면서
자신들에게만 순결을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잖아요」(여·22세)
「이화여자대까지는 좋은 생각간
에 사회를 한방향이로 몰고가
는 이데올로기가 있었지요. 민
주말까 민중이랄까: 자신을 표
현할만한 진정한 언어를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
제는 자신을 들었다 볼만한 여
유가 생기면서 자기표현으로서
의 성과 사랑의 눈치를 돌리느
라고 생겨났습니다」(남·23세)
연세대 趙惠貞교수(문학이류
학)는 이같은 신세대의 애정관
을 후기산업사회라는 거대한
흐름속의 탈근대적 성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혈통이 근원이던 농경사회에
서는 종래결혼이 당연했다. 공
장생산과 부부중심적 핵가족이
중요한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서구에서는 「단편적 사랑」과 연
애결혼에 대한 문화적 각본
이 부상했다. 그러나 개체중심
의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가족과 결혼은 조금씩 해체되
고 성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
인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농경사회
적 조부모 산업사회에 머물러
있는 부모세대, 그리고 후기산
업사회적 가치관의 신세대가
한사코에 뒤섞여 있으면서 혼
돈을 더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신세대의 성과 사랑을 기성
세대의 도덕주의적 가치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점점 힘들어질것
같다. 다만 스스로를 성정서
과 동성에게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성과 사랑이 모래돼야 할 것이
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金順德)

“체계적 성교육 시급”

聖心女大 사회학과 李令子교수

오늘날 젊은 세대는
성에 관해서 혼란된 의
식과 현실을 경험해야하
는 상황에 있다. 상반된
요인들이 혼재하는 이중
구조속에 살고있기 때문
이다. 한편에는 성을 금
기시하는 전통이 여전히
살아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성산업이 번창하
고 있다.
따라서 젊은 세대중
에는 성적 정숙함을 소중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금
까지 체계적인 성교육이
거의不在한 대신에 왜
곡된 성관념을 주입시키
는 사회환경에 쫓은 세
대를 방치해온 것에 1
차적 책임이 있다. 성이
단순한 본능적 욕구충족
의 행태가 아니라 문화
생활의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이 남녀 대등
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
는 진정한 의미의 인격
적 정서적 육체적 상호
교류가 될수 있도록 성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왜곡된 성을 파급시키는
사회환경을 바꾸는 노력
을 해야만 할것이다.